

민주당까지...국회 5·18 진상조사위 구성 철저히 외면

위원 추천 거들떠도 안보고 정쟁만...평화당만 1명 내정 민주당 "아직 시간 있어...원내대표 선출되면 추천 나설 것" 국방부는 "계엄군 성폭행 의혹 자체 진상조사 나서겠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의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2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도 특별법의 핵심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외면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5·18 당시 계엄군들의 성폭행 의혹 및 주장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0일 국방부와 국회 의안과 등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까지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거한 조사위원회 구성의 실무는 맡은 국방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오는 4월 30일까지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국회 의안과는 4개 교섭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하지만 여야 그 어느 교섭단체도 아직까지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국방부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차질을 빚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여야 1명씩 추천한다. 조사위원은 비서관급으로 급수는 없다.

진상조사위가 구성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행령 마련 등에도 상당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진상조사위

원회 구성이 공전하고 있는 것은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18 진상규명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18 진상 규명에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위에 적극적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진상조사위원으로 민병로 전남대 법대 교수를 내정했다"며 "야당 몫 조사위원 및 상임위원 추천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 의안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토대를 놓은 바 있는 최 의원은 "진상조사위 구성 등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오는 9월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여당인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18 당시 군 관계자에 의한 성



10일 오전 2시25분(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 일행을 태운 공군 757기가 착륙한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법무관 관련 주도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방부, 군 내부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피해자

들 면담을 통한 진상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전까지 이 사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마련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北 석방 한국계 미국인 3명 귀국

트럼프·펜스 부통령 직접 마중... "김정은에 감사"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전격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 등 3명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귀환했다. 이들을 태운 미 군용기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42분(한국시간 10일 오후 3시42분)에 미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이보다 약 10여분전인 2시30분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일행을 태운 전용기 앤드루스 기지에 착륙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내외와 함께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직접 마중을 나가 귀환한 미국인들을 맞이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함께 마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된 미국인들을 태운 군용기로 직접 올라가 이들을 데리고 나온 뒤 "이 세 명의 위대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밤"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을 석방해 준 데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미국과 북한)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는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정은)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를 현실 세계로 이끌고자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 앞에 선 김동철 씨는 "꿈만 같다. 정말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석방된 이들 미국인 3명은 곧바로 워싱턴DC의 월터 리드 육군 의료센터로 이송돼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북한에 억류된 이들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북측은 이들 미국인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전격 석방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자체 '권한대행 전성시대'

구청장 5명 중 4명 '대행' 22개 시·군 15곳 단체장 공석 지방선거 출마... 행정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주요 정당들이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면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출마에 따른 직무정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장 출마와 구청장 재도전에 나선 현역 기초단체장이 많고, 전남지역은 초·재선 기초단체장이 많아 기초단체장의 빈자리는 더욱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는 5곳의 구청 중 북구를 제외한 4곳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

고 있으며, 전남은 22개 시·군 중 15곳이 공무원 부시장과 부군수가 행정을 총괄하거나 조만간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역 단체장의 출마 공백 탓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 전성시대'를 맞은 셈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5곳의 구청 중 연임 제한 탓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송광은 구청장이 임기를 채우고 있는 북구청을 제외한 동·서·남·광산 구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앞서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행배 광산구청장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근 김성환 동구청장과 임우진 서구청장도 재선을 위해 구청장직을 내려놓았다.

전남에서도 현역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사퇴가 줄을 이으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박홍률 목포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최형성 담양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동진 진도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상태다. 또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등은 검찰 조사 등으로 단체장 퇴직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남지역 22시·군 중 9곳의 단체장이 공석이다.

여기에 정현복 광양시장, 구종근 화순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재선에 도전하는 6명의 단체장이 조만간 추가로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

체장들은 오는 25일까지 현역 유지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 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조만간 예비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직이 예상되는 이들 단체장까지 포함하면 전남 22개 시·군 중 68%가량인 15곳의 지자체 단체장이 공석이 되고 부시장·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정해진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요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